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2019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매체형 분야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간행되었습니다.

성북동 마을 잡지 13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차례

3p **성북동을 걷는 법**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 최성수

6p **성북동, 다시 한 번 변화의 길 위에 서다**
동네이슈 / 최호진

13p **지금까지 6년,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에게 묻다**
특집기획 / 차정미

27p **역사가 숨 쉬는 조선의 궁궐, 창경궁을 찾아서 ①**
이웃 동네 문화재 탐방 / 박진하

43p **성북동 골목길을 거닐다**
성북동 마을여행 - 골목탐방 / 최돌이

50p **최성수 시인 『물골, 그 집』**
우리 동네 작가를 소개합니다 / 신현수

61p **Museum and Restaurant: Figures, Tables, Exhibits**
우리 동네 전시를 소개합니다 / 17717

68p **성북동 놀이터 갤러리 달드베르**
우리 동네 아트살롱 / 이윤주

72p **자기를 찾아서**
주민기고 / 강다해

75p **<동네비평: 성북동 공공미술> 현장기록**
주민공론장 / 김기민

86p **2019 성북동천은?**
올해 활동 / 편집부

89p **내가 편집후기를 쓰다니**
편집후기 / 차정미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성북동을 걷는 법

최성수

살금살금, 하늘하늘
한옥 지붕 위를 걷는 고양이처럼
괴발디딤으로

때로는 담 너머 풍경에
꽂지발을

언덕을 오를 때는
가끔 물레걸음으로

노루걸음 말고, 불걸음도 말고
밭은걸음으로도 걷지 않기

지치고 힘들 땐
배착걸음에 게걸음이어도

느적느적, 어슬렁어슬렁
발땀발땀, 하느작하느작

걷다 보면 저기 보이네
먼 길, 우리가 살아온
그 길

최성수는 시인이며 청소년 문학 작가이다. 그 동안 시집 <장다리꽃 같은 우리 아이들>, <작은 바람 하나로 시작된 우리 사랑은>, <천 년 전 같은 오늘 하루>, <꽃, 꽃잎>을 냈으며, 청소년 소설 <비에 젖은 종이 비행기>, <꽃비>, <무지개 너머 1,230마일>을 내기도 했다. 성북동에 50년을 살다 지금은 고향인 강원도 안흥 보리소골로 귀향하여 고향과 성북동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북동이 사람들의 행복한 꿈을 담아내는 터전이기를 꿈꾸고 있다. 본지의 편집위원이자 성북동천의 고문이기도 하다.





동네이슈

성북동, 다시 한 번 변화의 길 위에 서다

최호진

2013년 11월,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 창간호에 ‘성북동, 변화의 길 위에 서다’라는 글을 쓴 후 5년 6개월이 지났다. 마을잡지를 발행하는 마을공동체 성북동친은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고 자생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며 지역 내에서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이 시간 동안 성북동은 얼마나 변해왔으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더 나아졌는가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글을 쓴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의 정체성을 이끌고 있는 문화유산과 주변 여건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 선잠단지는 발굴 조사를 통해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옛 공공시설이 선잠박물관으로 바뀌어 문을 열었다.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은 등록문화재가 되었으며, 그 앞 쌍다리의 옛 물길 구간은 건축가의 작업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서울 한양도성은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이며 옛 시장공관은 한양도성 안내센터로 바뀌었다. 심우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시 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그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성락원은 개방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성북동 내에 서울시 한옥밀집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졌고, 좁은 골목길에도 재생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성북동길의 인도를 넓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도 진행이 되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물리적 개선과 함께 성북동 문화재 야행과 지역 축제들까지 열리면서, 성북동은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변화에 발맞추듯 성북동 길의 큰 길과 바로 옆 작은 골목에는 다양한 식당들이 생겨나면서 밤거리 풍경이 변했으며, 그와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동네에서 자리 잡았던 생활형 업종의 점포들이 사라지기도 했다.

여전히 성업 중인 오래된 국수집, 설렁탕집, 이용원, 만두집 등은 수십 년 성북동의 변화 속에서 기억을 간직하게 하는 장소로 남아 있으나, 그와 함께 골목 안 풍경도 변하여 단층 한옥들이 사라지고 3층 이상의 건축물들이 들어서며 경관이 바뀌는 현상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정착한 빵집과 커피점들도 이제는 주민들과도 교류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공공의 기능이다. 공공사업을 통해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동안 주민 보행 편의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큰 길 주변의 상권은 외부 방문객들이 주 이용자가 되면서, 오히려 주민 생활권은 성북동길 주변을 벗어나 동선동과 삼선동 권역까지 이전한 예전의 성북동 식당들을 찾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성북동의 변화를 물리적으로 보여준 공공문화시설은 어떤 지 살펴봤다. 성북동에는 교육, 종교,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중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로는 성북구립미술관, 성북예술창작터와 2018년에 문을 연 성북선잠박물관이 있다. 이 공공문화시설들은 성북동의 역사문화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연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2018년의 통계¹⁾를 보면 성북예술창작터는 5,602명, 성북구립미술관은 13,375명, 성북선잠박물관은 10,324명이 각각 방문했고, 세 개 시설에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었다. 그렇다면 문화시설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 외에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시설인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주민들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두 곳은 무료로 개방되고 한 곳은 구민의 특별한 할인 없는 적은 입장료를 받고 있다.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시나 성북구의 마을자치 정책과 관련하여 그 흔한 주민 커뮤니티 모임, 대관을 하기도 쉽지 않은 공간들이다.

기획전시가 있어도 현수막과 포스터를 보고 찾아가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 동네의 주인인 주민들이 아닌 전문 분야의 명망있는 사람들만을 초대하여 하는 행사는 과연 성북동 주민들이 사랑하며 지속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장소만 성북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인터넷

에서 해외의 한 지역 서점이 근처로 이사를 가는데 주민들이 인간 띠를 이어 책을 하나씩 날라주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계속 떠오른다.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은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지역의 모든 세대와 계층의 구분 없이 주민들이 방문,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문화 형성의 장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문화시설 외에 성북동에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도서관이다.

성북구 내 구립도서관은 총 열두 곳이 있고, 2018년에는 이 열 두 곳의 도서관에 총 118만 명이 이용을 했다.²⁾ 규모와 위치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해에 10만 명이 한 도서관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지역 외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비해 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생활권자 중심의 방문객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역사문화지구 성북동 내에는 주민센터에 마을문고가 있고 성북예술창작터에 자료실이 있지만, 주민들의 이용도는 낮다.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최신 도서들이 정기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도 자연스레 찾지 않는 공간이 된다.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운영과 관리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북동은 초등학교가 있고 인접지역까지 포함하면 많은 학교들이 있다. 어떤 주민에게는 열람실이, 또 어떤 주민에게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과 평생학습은 한 곳에 장소를 만들어놓고 찾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서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다.

1)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대상 정보공개청구 결과, 문서번호 문화체육과-14859

2) 각주1과 동일

동네는 빠르게 변해 가는데 시설 운영은 주민들의 욕구와는 달리 점점 스스로 고립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지역에서 보는 것도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은 관람의 권리를 부여받기 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과정을 원하고 있다.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은 단순히 방문객 숫자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상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성북동 정체성 형성의 한 축을 만들고 있지만, 공공시설이나 문화재 또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애정을 줄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반드시 열어두어야만 한다. 또한 역사문화지구에 걸맞은 주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과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시설만이 성북동을 채운다면, 주민들의 생활권은 오히려 성북동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들려오는 정주권 보장에 대한 많은 목소리들을 접하고 있지 않은가. 공공문화시설도 점차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함께 발맞춰 나간다면 문턱이 낮아지고 자연스레 동네의 자랑거리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정비 할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주민들이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공공시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미래를 내다봐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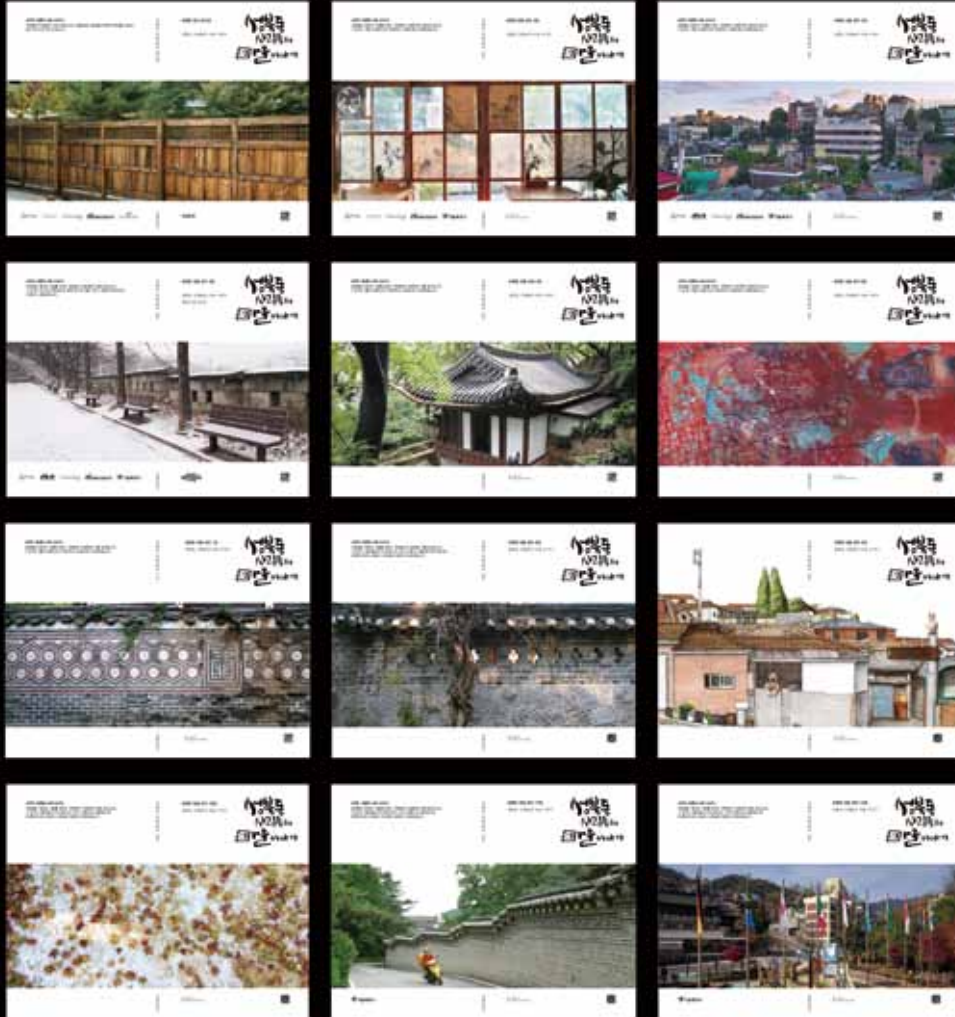
-
최호진은 사단법인 지음건축도시연구소 소장이다. 건축과 도시,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비영리 활동에 뜻을 두고 있다. 성북동천 운영위원이며 창립부터 함께 해오고 있다.



특집기획

지금까지 6년,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에게 묻다

정리 | 차정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2013년 창간호부터 2018년까지 총 12권의 잡지가 발행되었고, 올해 13호와 14호 발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잡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저로서는 성북동천이 지난 6년 동안 마을잡지를 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마을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았을 텐데 그 과정은 어땠는지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담아 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편집위원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궁금했던 지난 이야기들을.

차정미 : 창간호 콘텐츠들이 거의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창간호 때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첫 호를 만들 때 어땠나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최성수 : 창간호 발간 때는 <성북동천>의 전체 조직 아래 마을잡지 발간 팀이 따로 있었어요. 저하고 김홍식, 장영철, 김현주, 오예주 씨 등이 편집위원이었고,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수시로 전체 <성북동천> 회의에 보고하고 의견과 도움을 구하는 체제였지요.

창간호 기획은 편집위원들이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기록하여 제안서를 내고, 회의를 통해 수정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듯해요.

사실 성북동이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잡지도 다양한 내용을 담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성북동의 특징을 먼저 뽑아보았지요. 문화재, 인물, 가게, 주민이 그런 특징적인 소재로 공유되었고, 공유가 이루어진 후에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었으니,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사진이 많이 들어가고, 읽히는 잡지를 만들고, 가능하면 직접 쓰고, 권수가 늘어갈수록 보관하고 싶어할만한 잡지를 만들자는 생각이 창간호 편집위원들이 공유한 생각이었지요.

박진하 : 창간호에서 저는 집필진으로 참가했습니다. 당시 편집장이셨던 최성수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라는 코너에서 우리 부부가 운영하던 <성북동 디미방>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어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시작하는 식당 일은 낯설고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마치 이웃 친구처럼 다가오는 성북동천 식구들이 좋아서 2호부터는 편집진의 역할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 : 성북문화재단에서 함께 근무한 오예주 님의 권유로 편집위원이 되어 창간호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편집위원회에서 제 역할은 성북문화재단과 성북구청의 문화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정도가 다였던 것 같아요. 다른 편집위원님들 분주히 준비하는 것 보면서 순가락 하나 크게 얹고서 창간호를 시작했어요.

김기민 : 창간호 제작 과정에는 기고로만 참여했어요. 주민 아카데미 <성북동 마을학교> 운영과정을 소개하거나, 그 일환으로 진행했던 강좌들의 결과물을 잡지에 싣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했었는데요, 성북동천의 사업·활동과 잡지가 연결되는 지점들이 인상적이었고, 이후 단체활동과 잡지 제작과정이 긴밀히 연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때의 경험과 틀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차정미 : 2013년 첫 호에 최호진 선생님의 권두칼럼 「성북동 변화의 길 위에 서다」를 보면 ‘다양한 활동들과 외부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본은 성북동길의 가로변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모른다’고 나오는데요. 마치 6년 후 지금의 성북동을 예견한 듯 특히 성북동길의 가로변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북동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여전히 계속되는 고민이고 그 무게는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수 : 성북동은 크게 두 번의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1960~70년대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였을 겁니다. 성북동은 원래 곳곳이 빈터였고, 집들도 지금처럼 다다다다 붙어있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곳곳의 빈 터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성북동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성북동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가게도 몇 군데 없는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지난 6년이 아마도 성북동의 두 번째 변화의 시기였던 듯해요. 그 과정에 두 가지 일이 있었지요. 하나는 재개발 붐이었어요.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부동산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외지인이 사놓은 집이 늘어나고, 토박이들은 집을 투기세력에게 팔고 다시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고, 사람들은 점점 삭막해져갔어요. 자본이 주민을 갈라놓고 반목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 광풍이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아 다행스럽기는 해요. 또 하나는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일이지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자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늘어난 관광객들을 노리고 가게들도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성북동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상가들과 주말이면 북적이는 탐방객들로 조용하던 성북동은 번잡한 동네로 바뀌게 되고 말았지요. 이 두 사건은 성북동을 고즈넉한 성곽 마을에서 무언가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무엇보다도 돈이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바꾸

어 놓았어요. 저는 성북동이, 비록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지켜야 할 가치와 삶이 살아있는 곳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김철우 : 성북동의 변화는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더 이상 건물주와 가게주인의 갈등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주민에게 더 많은 문화공간이 필요합니다.

박진하 :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성북동 골목길을 지키고 있는 조그마한 점포 운영자들이 십년, 아니 백년을 이어갈 수 있게 해 노포(老鋪)¹⁾로 성장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성북동의 자랑이고 성북동을 찾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철 : 작은 가게들과 부지런한 손길로 가꾸진 마당과 화단이 있는 집들을 보면 변화 속에서도 성북동만의 매력을 애써 간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성북동의 매력을 찾아 성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성북동을 성북동답게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어 성북동의 어제와 오늘이 겹겹이 이어지고 기록되도록 지켜주었으면 해요.

김기민 : 성북동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사람들이 ‘성북동’을 그럴 때 떠오르는 어떤 상이나 느낌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성북동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겠지만 아마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히 드러내고, 이곳에 발 딛고 있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부단히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

1)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

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각자의 지향과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실현되었을 때 내가 좋아했던 그 성북동의 모습과 풍경, 분위기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살피고 토론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성북동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차정미 : 가로수 별목사건, 지역공동체 특집, 구의원 간담회, 주민참여 공공미술 등등 성북동천은 또한 지역현황과 이슈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루고 싶은 지역 이슈가 있다면?

최성수 : 저는 문학이 주업인 사람이니 무엇보다도 문학으로서의 성북동을 기억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성북동, 시인과 만나다’ 같은 행사가 정례화, 정기화되면 좋겠어요.

또 문학인, 예술인의 집이었던 곳에 작은 이름표 붙이기 같은 것도 좋겠지요. 그 길을 연결해 시의 길, 음악의 길 같은 골목 지도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요. 특히 시와 성북동을 연결하는 공공미술 같은 것을 제작할 기회가 있다면(이미 공공미술가 최영환 씨와 몇 번 협업해 본 사례도 있긴 하지만), 성북동 문화 마을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김철우 : 문화공간의 인터뷰와 기사, 다문화 가족의 소식도 다뤄보고 싶어요. 또 성북동에는 종교시설이 유독 많고, 다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으니 종교단체의 기사도 팬츠를 것 같군요. 올해는 성북동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데 주민자치회 소식도 전했으면 합니다.

장영철 : 가로수 별목사건 당일 잘려나간 플라타너스 밑동을 바라보며, SNS를 통해 더 이상 가로수가 베어지지 않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모습이 변화 속에서 성북동

을 성북동스럽게 남아있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되고 그 힘을 응원하고 함께 하는 일들을 성북동천이 계속 실천했으면 합니다.

김기민 : 18년도에 시도했던 <동네비평: 성북동 공공미술> 공론장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공공, 공적 자원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초대함으로써 동네 안에 좀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잡지를 발행하는 지역단체로서 성북동천이 이 이슈를 계속 놓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차정미 : 지난 기사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네빵집 두 곳을 대결구도로 소개한 샤넬블랑 vs 오보록, 야생화 탐방기,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 등 손에 다 못 꼽을 만큼 많은데요. 다시 보고싶은 기사가 있다면? 혹시 지난 기사 중에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기사가 있는지요?

최성수 : 저는 ‘골목길 탐방’이 가장 아쉬워요. 성북동의 특징은 골목과 비탈이거든요. 거미줄처럼 무수하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골목길은 성북동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골목 탐방기를 이어갔으면 해요. 애초 골목길 탐방을 기획할 때 가졌던 큰 꿈이 있었어요. 탐방기를 다 끝내면 그 탐방기를 모아 지도책으로 펴내고 싶어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진하 : 초기 골목 이야기는 편집위원 전부 참가하는 골목 기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 동네에서 그 골목길의 지난 세월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어르신 한 분을 선



정하여 그 맥을 찾아가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성북동의 모습을 체험하고 그를 공감케 하는 그런 장(場)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철 : 주민인터뷰를 계속 이어갔으면 해요. 골목탐방도 그렇고요. 특히 주민인터뷰는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를 더욱 마을 속 이야기로 이끌어주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돼요. 성북동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들여야 보면 성북동의 매력이 무엇이고 성북동이 무엇을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제게 상당한 울림을 주기도 했어요.

김기민 : 창간호에 실렸던 시창작교실 작품들이 떠오릅니다.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시창작교실이나 글쓰기 워크숍 같은 시간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그 이야기를 글로 옮겨보는 과정이 갖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력이 된다면 성북동천이 주민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꾸준히 만들어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차정미 : 이제까지 잡지를 만들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김철우 : 성북동 윗동네에 어르신 취재 중 동네 어르신끼리 싸우시고 빠치시고(너무 친한 사이니까) 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김기민 : 5호 <특집, 골목이야기3> 코너에 “홍대부고 언덕 마을의 일상”이라는 글을 기고하였는데요, 당시 그 동네에 살고 계시던 김철우 대표님께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잡지에 실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시고, 함께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동네 공터에 상을 차리고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쪽에서 약주를 들고 계시던 어르신이 당신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역정을 내시며 밥상을 뒤엎으셨어요. 결국 먹던 밥과 국을 제가 뒤집어쓰게 되었는데 같이 계시던 어르신들이 당황하시며 여간 미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취기 오른 그 어르신을 다른 곳으로 모셔가고, 제게는 연신 미안하다며 챙겨주시는데, 이상하게도 그제 별로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내가 이제 정말 이 동네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영철 : 성북동 재개발 3구역 골목길 탐방이 기억에 남아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당시 4살 작은딸과 함께 탐방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작은 딸이 잘 따라와 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어요. 맑았던 가을 어느 날, 사랑스러운 딸과 둘만의 첫 골목탐방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차정미 : 6호 내용을 보면 유독 문화 분야의 기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호랑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책 두께도 가장 얇고요. 편집후기를 봤더니 당분간 잡지 발행은 쉬게 될 것이라고 나오더군요. 이때 고비가 한번 왔었군요.

박진하 : 사실 편집 후기를 쓰면서 장난기가 발동된 것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이 없으면 잡지 발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응석을 피운 거죠. 좋은 일도 3년 정도 지속되면 권태기라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그렇게 된 시점입니다. 편집 위원들도 처음의 열정에 비해 조금은 시들해지기도 했고, 그 호의 기사를 집필하신 분들의 글도 비교적 짧았어요.

김기민 : 이 잡지를 계속 낼 수 있을까, 해야 할 일들을 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시기를 맞이했어요. 해마다 편집위원장을 돌아가면서 맡는데 당장 2016년 마을잡지 간행을 총괄할 편집위원장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죠. 6호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이에 대한 논의를 다 하기엔 시간이 부족했고,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며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아마 편집후기에 다음 해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당시 편집위원장 박진하 선생님께서 쓰셨던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사업 3년 일물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구요.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은 3년 일물제가 적용되지 않은 덕분에 다음 해에도 연속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최성수 : 우선 잡지 편집위원이 지쳐서 타성에 젖을 시기였지요. 모두들 서로 책임을 맡기 힘들어할 때였고, 기획도 늘 그게 그것 같았고,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주지를 시골로 옮기는 바람에 자주 참석도 못했고 해서 더 면목이 없었지요. 조직은 늘 사람이 우선이고, 새로운 사람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야 생기가 일어나는데, 그런 면에서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차정미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가 그저 순탄하게만 온 건 아니었듯이 늘 어려움은 있기 마련인데요. 잡지 발행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김기민 : 성북동천 모임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만큼”이라는 기조를 갖고 참여해왔고, 함께 활동하는 회원님들도 이런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어요.

공익·비영리 활동을 하다 보면 ‘왜’냐는 질문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경험하곤 합니다. 중요한 과정이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의 활동은 어떤 사명감과 목적성, 분명한 목표의식만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왜 하느냐보단 지금 하는 것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그 과정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즐겁다면 그냥 하게 되기도 하지요. 먹고 사는 일처럼 했다면 지금까지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최성수 : 친밀감? (웃음) 서로 나이대도 다르고, 삶도 많이 다르지만, 그저 저녁에 만나서 편하게 밥 먹고,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동네에 있다는 것만으로 성북동은 살만한 곳이지요. 그 친구들이 성북동천 사람들이니, 잡지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김철우 : 편집위원들의 친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영철 : 사실 전 성북동에 살고 있지 않아서 성북동천의 편집위원들과 친밀감을 갖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성북동에서 만난 인연을 급하게 엮으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도 얘기 나누는 만큼씩 인연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런 인연으로 잡지를 함께 발행하면서 맡은 역할을 꼭 지킬 것 이라는 믿음이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차정미 :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최성수 :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잡지 체제도 바꿔보고 싶고, 편집위원들과 더 유대감도 강화하고 싶긴 한데, 느슨하게 느긋하게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또 그래야 오래 가지요. 바쁘다고, 서두른다고 오래 가는 건 아니니까요.

김철우 : 편집위원들끼리 더욱 친교의 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박진하 : 독자의 폭을 넓히고 싶어요. 우리 성북동에는 특히 대사관저가 많습니다. 그들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확인하는 그런 취재들이 그들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장영철 : 제가 좋아하는 성북동이 물리적 공간에서 감성의 영역으로 확대되도록 해준 성북동천과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늘 그렇듯 천천히 가깝게 흐르길 바랍니다.

김기민 : 함께 하는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하고 싶을 때까지 고생스럽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잡지를 만드는 과정에 남아 있고 싶습니다. 이 과정이 갖는 즐거움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
차정미는 성북동천이 진행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운영담당자 겸 본지 편집위원으로, 올해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성북동에서 살면서 마을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다.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완성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나에게 맞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은 무엇일까 계속 실험 중이다.





이웃 동네 문화재 탐방

역사가 숨 쉬는 조선의 궁궐, 창경궁을 찾아서 ①

박진하

월근문과 경모궁

가끔은 가볍게 산책을 하러 한다면 한양도성을 따라 와룡공원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성균관대학교 후문을 지나 명륜동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우측으로 창경궁의 담장이 보인다.

이 궁궐은 다소 별궁에 가깝지만 경복궁과 창덕궁 다음으로 규모 면에서나 조선 왕조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면에서도 세 번째인 궁전이다. 또한 동쪽 위치한 궁궐이라 하여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이들 두 궁전의 지맥은 북악산 동쪽에 위치한 응봉에서 시작한다. 북악산이 동쪽으로 흘러 크게 뭉쳐 솟아 오른 것이 응봉이요, 이것이 기세 좋게 꿈틀대며 내려오다 종묘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다. 그 지맥의 동쪽에 위치한 궁궐이 창경궁이다. 그런 산세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 성균관대학교 입구이다. 즉 응봉의 산줄기를 평탄하게 깎아서 평지로 만드는 것을 대신해서 그저 산의 흐름에 따라 담장을 치고 원래 있던 자연 그대로를 궁궐 후원이 되게 한 것이다. 그러니 담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 담장을 보고 있노라면 살아있는 사람의 맥박처럼 지맥이 살아 숨 쉬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다.

그 창경궁의 담장을 곁에 두고 조금 더 나아가 어린이 과학관으로 빠

저 나오면 궁문을 만나게 된다. 솥을 대문을 두 개 맞붙여 하나는 크고 그 곁은 보다 적게 만든 것이다. 이 창경궁의 북쪽에 위치한 궁문이 ‘월근문(月觀門)’이다. 매월 뵈겠다는 의미를 가진 이 궁문은 정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누굴 뵈겠다는 뜻일까?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신위를 뵈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서울대학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에 사도세자의 신위를 모신 경모궁이 있었다. 그러니 매월 초가 되면 정조는 승지와 사관 그리고 입직한 도총부와 병조의 당상과 낭청만 가마를 따르게 하여 이 문을 빠져나갔을 것이다. 임금이 탄 가마는 큰 문으로 이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작은 문으로 출입했을 것이다.

나도 그 발자취를 따라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한다. 혜화로 도로변에서 출입할 수 있는 동문의 북쪽 정원에는 ‘함춘원(含春苑)’의 유적지라는 안내문과 함께 둥근 형태의 섬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석조물이 진열되어 있다. 이는 커다란 장방형의 연못 속에 둥근 세 개의 인공 섬을 만들어 삼신산을 상징하게 하였는데 그 때 사용된 석재인 것이다. 그곳에서 창경궁 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경모궁을 만나게 된다. 지금은 함춘문과 신위를 모신 사당 즉 윤궁이 위치하던 월대만 남아 있다. 이처럼 현재 잔존하고 있는 함춘문은 가장 간단한 지붕형식으로 책을 반쯤 펴놓은八字형으로 되어 있는 맞배지붕의 목조건물이다. 또 신위를 모시는 윤궁인 까닭에 화려한 단청을 피하고 붉은 주칠과 노란 황토 빛으로 장식하고 있어 선명함이 대비되면서 묘한 단아함이 배어 있다. 지금은 발굴조사 과정이므로 가운데 뜰은 흙밭이지만 그 건너편에 위치한 장대석을 3단 높이로 쌓아 만든 월대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뜰에서 이 월대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계단은 모두 3개이며 중앙에 위치한 것은 혼령이나 제사에 쓰이는 향 등이 옮겨질 때 사용되었으며 오른쪽 길은 왕이 이용하던 어로이다. 나머지 왼쪽 것은 세자로이다. 그 계단의 난간석인 소매 돌은 영혼이 둥글게 뭉쳐져 지상에서 출발하여 무



지개를 타고 상승이라도 하라는 것처럼 곡선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위 기단석까지는 보존되어있으나 신위를 모시는 윤당 즉 신당 건물은 사라져 버렸다.

이젠 이곳에 모셔져 있던 사도세자 신위도 정식 왕으로 추존(追尊)¹⁾되어 종묘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인을 잃은 이 경모궁은 용도폐기 상태에서 방치되어 버린 것이다.

창경궁 최고의 전망대 그리고 홍화문

드디어 창경궁을 마주 볼 시간이 되었다. 그 전에 창경궁을 한눈에 일견해 볼 수 없을까? 우리 한국화에서 풍경화를 그릴 땐 새가 하늘 높이 떠올라 땅위의 풍경을 내려다보듯 그 시야(조감, 鳥瞰)에서 그리게 된다. 오늘의 주인공인 창경궁 전체를 그린다면 어디에서 스케치하면 좋을까?

1) 예전에, 제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높이는 뜻으로 제왕의 칭호를 주는 일을 이르던 말. 왕위에 오르기 전에 죽은 사도세자는 사후에 ‘장조’로 추존되었다.

그 전망대가 이 병원 내에 있다. 압센터 4층에 가면 베란다에 행복정원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명당이다. 그곳엔 각 정전과 편전 그리고 침전의 위치까지 표시해 둔 친절한 안내판이 있어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셈이다.

창경궁의 가장 앞에 위치한 넓디넓은 그 공간은 지금은 6차선 간선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곳엔 궁궐 앞 광장이 있었다. 무과 시험을 볼 때 시험장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큰 광장이었다. 표적 판을 향하여 활을 쏘기도 했을 것이고 말을 타고 활시위를 당겨 표적을 적중시킬 때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의 탄성과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을 것이다. 아님 마상에서 창을 비껴들고 있다가 표적물을 찌르거나 크게 휘둘러 허수아비를 경쾌하게 자르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그 뒤로는 장엄하게 버티고 있는 홍화문이 있으며 그 너머로 중문인 명정문이 자리 잡고 있다. 커다란 뜰 뒤로 정면을 호령하듯 지켜보는 건물은 이 창경궁의 큰 어른이신 정전, 명정전이다. 그 왼쪽에 남면하고 있는 커다란 건물이 왕의 집무 공간인 편전, 문정전이다. 그리고 여기에 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편전과 정전 사이에 끼여 있는 건물이 숭문당인 것이다. 잘 안 보이는 것은 함인정도 마찬가지로 정전의 뒤쪽에서 북쪽으로 조금 이동하여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함인정의 북쪽에 있는 왕의 침실인 환경전까지가 외전이다. 일반 양반가에서 사랑채 같은 것으로 주로 왕이 활동하는 공간인 셈이다.

더 북쪽으로는 내전이 있다. 앞서 서술한 왕의 침실인 환경전은 남향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과는 달리 ‘ㄴ’의 위치에 동향으로 지어진 건물이 경춘전이다. 왕비나 왕세자빈의 생활공간이자 침실로 사용된 곳이다. 보다 북쪽에 위치한 큰 건물은 그 크기로 보아도 중요한 건물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궁전으로 왕실의 큰 어른이신 왕대비나 왕비의 침실인 것이다. 그 옆으로는 여인들의 생활공간인 양화당이 있으며 후비들의 거

처인 집복헌과 영춘헌은 이곳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좋은 조망 처이지만 해가 질 무렵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창경궁 뒤쪽으로 지는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광인 탓에 사진도 찍을 수 없다. 또 이곳이 병원인 만큼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건 기본이다.

드디어 창경궁에 도착했다. 홍화문 앞에 도착한 것이다. 지금은 그 큰 광장을 도로에 내어주고 있으나 꽤나 넓은 공간이었다. 또한 이곳은 다른 궁문에 비해 인가가 가까워 백성들도 접근하기 편했다. 때문에 왕이 이곳까지 왕립하여 백성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또 가뭄 때는 쌀을 나누어 주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정조는 그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때 그를 기념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휼미를 나누어 주던 그 장소인 것이다.

그 광장의 뒤 2층 누각으로 세워진 궁문이 홍화문이다. 당초 동소문의 이름이 홍화문이었으나 그 이름을 이 창경궁에 내어주고 혜화문으로 바꾸게 만든 그 장본인이다. 양쪽 처마 끝이 날렵하게 올라간 이 홍화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 2층 누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 궁문을 지나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돌로 만든 옥천교이다. 궁의 북쪽 춘당지에서 기원한 물길이 흘러 궁문과 중문 사이로 흐르게 만든 하천이 옥천이다. 맑은 물이 흐른다하여 옥천이라 하였고 이 조그마한 하천은 이 궁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속의 잡념을 씻어버리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상징물인 것이다.

이 교각은 두 개의 아치형식으로 홍예를 틀어 만든 것으로 둘 사이에 새겨진 귀면 상은 벽사의 의미를 담았겠지만 무섭다기보다 살짝 웃는 듯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위쪽은 3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운데 어도





弘化門

를 중심으로 왕이 거동 할 때 좌우에 호위하는 의장대 행렬을 고려한 것이다. 난간의 시작점과 종착점에는 석수를 조각해 두었으나 그 사이의 난간장식이 더 눈에 띈다. 전체 5칸을 결합하는 중간에 사각 석을 세우고 그 위로 새겨진 꽃 봉우리가 귀엽다. 그 사이에 끼운 판석에는 꽃 무늬의 풍혈을 뚫어 시원한 개방감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풍혈 사이로 양각으로 돌을새김을 한 장식기둥이 일품이다. 둥근 배흘림 기둥위로 주두 장식이, 그 밑에는 주 초석을 새기고 그 사이로 구슬모양의 장식을 더했다. 화려하지도 않아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진짜 장인의 숨씨이다.

어린 날의 소풍지, 창경궁

그 교각 너머에 있는 명정문은 지금 공사 중이라 볼 수도 없고 통행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발길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옥천 주위로 관상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앵두나무이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이 나무이었는데 그 이유를 몰랐다가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는 세종이 가장 좋아하던 과일이란단다. 이 조그맣게 시큼한 것을 좋아하셨다니 하는 생각이 든다. 허나 이 성군의 업적을 기리며 이 앵두나무를 주변에 가꾼 사람들의 품성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어 매화나 살구를 비롯하여 조선 왕조의 상징인 오얏 꽃을 맺는 자두나무 등이 나란히 우리를 반긴다. 이들 꽃들은 비슷해서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들이 한창일 이른 봄에 오면 모양이 유사한 하얀 꽃들로 꽃 대궐을 이룰 것을 상상하며 행각으로 다가간다.

이른바 남 행각으로 칸막이를 하여 공간이나 부대시설로 사용하던 공간이다. 지금은 붉은 원주만 나란히 줄맞추어 서있다. 앞뒤로 두 개의

붉은 주춧돌로 단장한 둥근 원주와 이와는 조금 더 뒤 쪽으로 떨어져 있는 목제 벽체 또한 붉은 색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장엄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또 벽체는 네 칸으로 나누고 이걸 흰 선으로 테두리를 만들어 구분하고 있다.

특히 하단의 장방형이 위보다 더 높게 해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붉은 주춧돌의 원주가 두 줄로 병렬해 있는 것이 교토의 이나리 신사에서 느껴졌던 감동이 되살아나게 한다. 그 신사에는 붉게 주춧돌 키 큰 도리 너머로 또 하나의 도리가 있어 1천개의 붉은 도리가 산비탈을 따라 터널을 이루고 있었다. 규모 면에서는 이 행각이 그에 비할 수 없으나 또 다른 점이 있으니 눈여겨 볼만하다. 천정을 가로지르는 대들보에는 청록색을 바탕으로 연꽃무늬 단청을 하고 그 위에 나란히 천정을 받치고 있는 서까래의 행렬도 청록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이로 세로로 관통하고 있는 도리는 붉은 주춧돌이니 이 또한 무슨 묘한 조화란 말인가.

이런 행각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럼 눈앞으로 푸른 소나무 숲이 펼쳐진다. 물론 다른 관목들과 교목들도 함께 하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넓은 공터에 여러 나무들이 가꾸어져 궁중 숲으로 꾸며진 공간이 되었지만 당초는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도총부와 궁내 가마와 말들을 관리하는 사무실(궐내 각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걸 일제는 이런 전각을 파괴하고 파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훼손 작업은 1908년 4월에 시작되어 허물어 낸 건축자재는 다 매각하고 초석이나 뿔돌 같은 석재마저도 흔적도 없이 파헤치고 옮겨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곤 이 땅에 동물원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식민지 조선 최고의 유흥지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이 동물들이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진 1983년 7월까지 내원에 설치한 식물원과 더불어 우리 민중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유원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1980년대 초반 이전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라면 ‘창경원’²⁾과 관련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창경궁에는 벚꽃들도 많았다. 일본의 상징인 벚꽃들을 대량으로 심고 가꾸었던 것이다. 지금은 벚꽃 놀이하면 서울에선 다들 여의도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그 곳에 벚꽃이 많게 된 것이 이 창경궁에 있던 벚꽃들을 그곳으로 이식하면서 생긴 일인 것이다.

사도세자의 죽음과 사라진 동궁전

이런 과거를 회상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선인문을 만나게 된다. 궁내 사무실로 출근하는 관리들이나 편전에서 왕을 접견하려던 대신들이 이용하던 출입문이다. 다른 궁전의 건물이나 시설물들도 다들 나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이 궁문은 조선 궁중사에서 가장 슬픈 사건을 지켜보게 된다. 사도세자의 죽음이다. 쌀을 보관하던 뒤주에 갇혀 온갖 모멸을 견디며 기갈과 굶주림으로 신음하며 여드레 만에 이 문 앞에서 죽게 된다.

이 궁중 전원 가운데 관천대가 있다. 방형의 석대 위에 6개의 계단을 두어 오르내릴 수 있게 했다. 석대 위 귀퉁이에는 귀여운 꽃 봉우리 모양의 장식을 가진 사각석이 세로로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기구(소간의)를 비치할 수 있는 받침석이 놓여 있다. 이 받침석의 상단은 방형이며 잘록하게 원형으로 가늘어져 내려오다 건물의 기둥을 받친 초석처럼 넓게 퍼져 하중을 감당하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담하며 우아하다고 생각을 들게 한다. 이것의 기능은 첨성대처럼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는 것이었으나 경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 그래도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데 이상이 없었겠다 싶다. 지금은 여기저기 밝게 빛나는 전등이나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서울 어디에서도 별을 관측하기 어렵다. 허나 그 땐 달랐다. 평지에서도 달과 별을 볼 수 있었다.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조금의 높이만 허용되면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에서는 책력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걸 과종과 추수 시기 등을 기록한 것으로 요즘의 달력과 비슷한 것이다. 매년 동지가 되면 이런 책력이 국가에서 만들어져 전국으로 배포된다. 만약 이 책력이 잘못되어 모 심기 철을 놓치거나 벼 수확을 그르치게 되면 큰일이다. 그래서 이런 하늘을 살펴보는 관천대가 그저 상징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창덕궁 쪽으로 나아가면 이곳 역시 숲이거나 텅 빈 공간이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동궁 터인 것이다. 사도세자가 자란 저승전을 비롯한 여러 동궁 전각들이 있었던 장소이다. 저승이라고 하니 죽어서 가게 되는 세상이라는 의미에서의 저승이 아니고 이때의 저(儲)는 태자라는 의미이며 승(承)은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뜻을 간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설은 사도세자가 경종의 부인을 모시던 궁녀에 의해 이 저승전에서 키워졌으며 그녀들이 당시의 왕인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고 믿게 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져있었다. 경종이 임종할 당시 영조가 간장 계장과 생감을 드려 먹게 함으로써 죽게 되었다는 소문이다. 한방에서는 게와 감이 상극이어서 이를 함께 먹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다 한다.

이런 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소문은 많은 역사적인 비극을 만들

2) 일제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궁궐이 갖는 상징성을 격하시켰다.

어 낸다. 경종의 어머니는 우리가 다 아는 희빈 장씨이다. 흔히 사극에서 이 여인을 독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중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궁궐로 들어가 그 혹독한 경쟁을 뚫고 왕의 사랑을 쟁취한 여인이었다. 이처럼 왕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된 이 여인은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노론과 대척점에 서게 된다. 한편 노론과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남인들은 희빈 장씨를 지지하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당시 노론들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왕과 결혼을 하게 한 여인이 인현왕후이었다. 이런 국혼을 한 왕후의 경우에는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정치적 후광이 있기에 이런 배경 없이 왕의 사랑에만 의존해야 했던 많은 궁녀들에 비해 그리 왕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까닭에 왕의 사랑을 받는 여자로서의 역할보다 정치적인 중심점이 되어 친정의 가문을 보호하고 성장케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 인현왕후는 희빈 장씨와의 사랑싸움에 저 폐서인이 되어 출궁하게 된다. 그 때 노론의 구세주로 등장한 여인이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이었다. 이 여인은 궁녀도 아니었고 그 궁녀 밑에서 허드레 일을 하는 무수리였다. 희빈 장씨와 대척점에 서 있던 노론 세력들은 이 보잘 것 없고 정치적인 후광도 없는 이 여인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드디어는 왕의 새로운 사랑이었던 이 여인을 통해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를 궁지로 몰고 가게 되었다.

다시 희빈 장씨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운 노론들은 이 여인을 죽이는 것에 이르게 된다. 이어 당시 세자로 있던 경종을 축출하고 영조를 세자로 옹위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지만 여기까진 이르지 못하고 선왕이 죽게 되어 경종이 다음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결국은 노론의 주축이었던 4명의 대신들은 이 경종에 의해 죽임을 당

하게 되나 어찌 된 일인지 병약했던 경종은 즉위 4년 만에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당시 노론 세력의 반대편에 서있던 소론들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일반 백성들도 갑작스러운 왕의 죽음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드디어는 영조가 즉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청주 성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게 다 영조가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음모론에서 출발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세자는 동궁인 저승전에서 성장하였고 그곳에 남아있던 경종을 모시던 궁녀들에 의해 못된 생각이 이식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역사학자들이 많다.

어찌되었든지 영조에게 경종을 독살하려 했다는 음모론이 부담이 된 건 사실이었다. 사도세자가 5세가 되던 때에 이제 세자가 저만큼 성장했으니 선위를 하겠다고 했다. 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영조는 절대 난 왕위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허나 죄 없는 세자는 어떻게 되는가. 찹고 눈 내린 뜰에 엎드려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위하겠다는 명을 거둘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어린 아이의 맘은 어떠했겠는가. 이런 일은 여섯 살 때도 있었다. 무려 열대 번에 걸쳐 이렇게 선위 파동을 일으키는데 그 때마다 난리법석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런 역사를 간직했던 동궁전은 이미 모두 소실되어 사라져버렸고 텅 빈터에 나무숲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
박진하는 동소문동의 명소인 작은 식당 '디미방'을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요가와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본지의 편집위원으로 성북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성북동 사람이다.

성북동 마을여행 - 골목탐방
성북동 골목길을 거닐다

최돌이

“그런데 과자 부스러기가 섞여 있는 한모금의 차가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몸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쳤다... 그 순간 갑자기 추억이 떠올랐다. 이 맛, 그것은 콩브레 시절의 주일 아침(그날은 언제나 미사 시간 전에 외출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내가 레오니 고모방으로 아침 인사를 하러 가면 고모가 곧잘 홍차나 보리수꽃을 달인 물에 담근 뒤 내게 주던 그 조그만 마들렌의 맛이였다. 여태까지 나는 늘 프티트 마들렌을 보아왔지만 실제로 맛보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떠올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뒤 과자가게 선반에서 몇번이고 마들렌을 봤지만 먹지는 않고 지내왔으므로, 드디어 그 심상이 콩브레에서 보냈던 나날과 떨어져 보다 가까운 다른 나날과 이어져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에서

밤이 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밤과 함께 서 있는 곳은, 성북동의 한 국수집 즈음에 있는 ‘성북동과 문학’ 표지 앞. 언제부터 이곳에 표지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온 것. 다만, 나는 일상의 ‘삶’이 애타도록 그리운 밤이면 이곳으로 와 표지 속에 살고 있는 ‘성북문학냥이’의 눈으로 도로 건너편,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그 골목길이 시작되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그곳으로 들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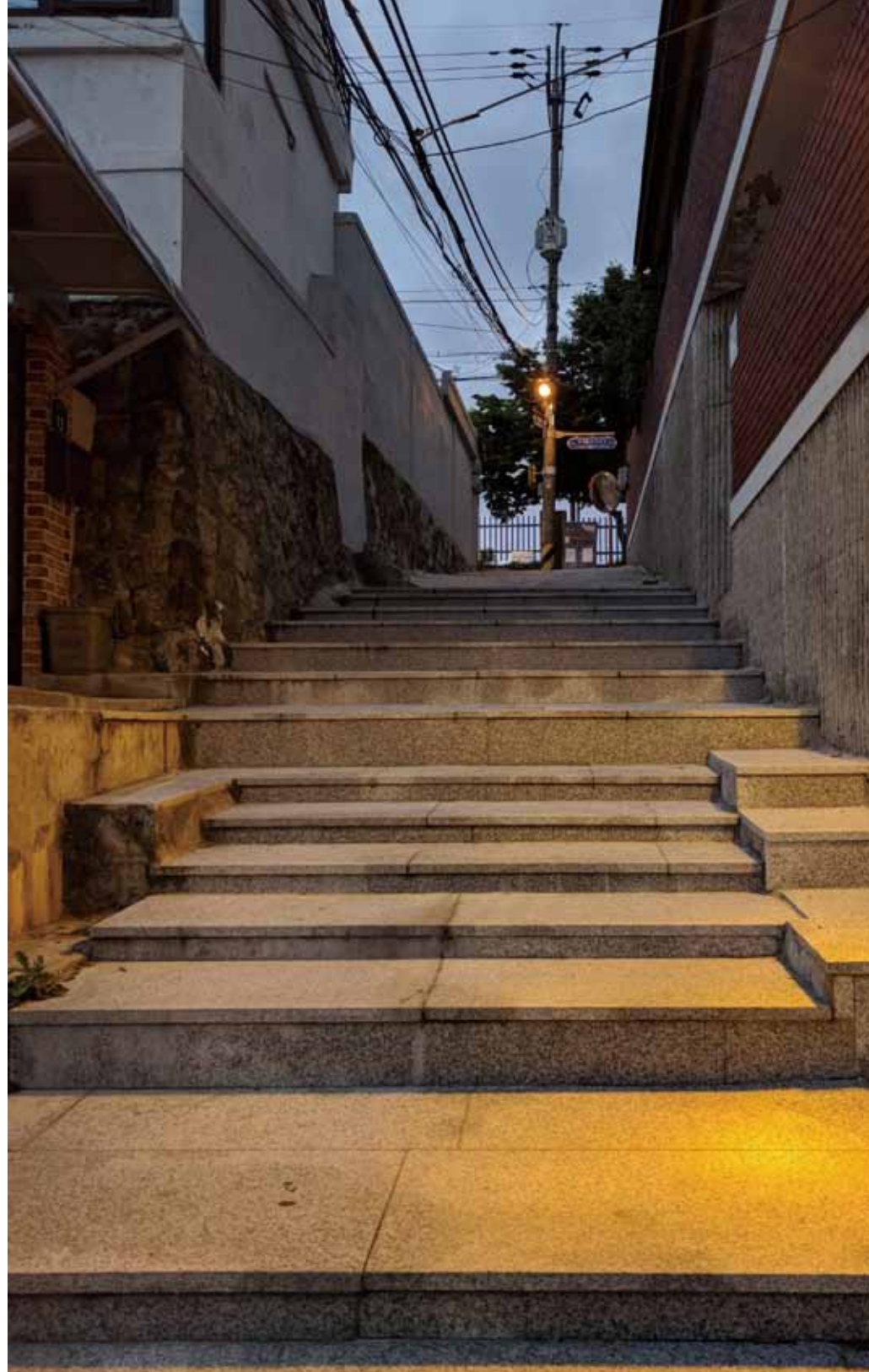


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기억, 삶을 소환해내려고 말입니다. 내 일 다시 살아갈 힘을 받아가려고 말입니다.

국수 집에서 조금 올라가 길을 건너면 성북문학냥이가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골목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가파른 계단이 이어지는 곳. ‘부자성북부동산’에서 시작되는 길. 오늘 산책길입니다. 올라다보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계단이지만 시작과 끝은 있는 법. 어두운 길이라 일상에 지친 영혼에 불안이라도 몰려올라치면, 어느 친절한 집 주인장이 밝혀 놓은 대문의 노오란 등이 불안을 잠재워주는 길입니다.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다리에 힘을 주고 올라가봅니다. 가다 힘들면 손을 잡을 중간 봉도 있습니다. 양 옆으론 집들이 있고, 담벼락에는 담쟁이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이름 모를 풀들이 그림자를 드리우며 반겨줍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풀도 그림자도 같이 흔들립니다. ‘어서 오라고. 이곳에서 네 영혼을 잠식했던 불안을 잠재우고 만만찮은 삶일지라도 살아있다는 것, 하루하루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계단이 사라질 즈음이면 길이 좁아집니다. 서울 아 니랄까봐 좁아진 그 길에는 항상 2대 정도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어디쯤 사는 분들의 차이겠지요. 자주 보니 주차된 차마저도 반갑습니다. 몸을 돌려봅니다. 올라왔던 계단을 내려다보다 눈을 하늘 쪽으로 살며시 올리면 성북동의 야경이 보입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조각난 야경이나 ‘참 다소곳한 야경이네’라고 내뱉어지는 따뜻한 풍경입니다. 성북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입니다. 반짝반짝, 휘황찬란한 야경이 아닌,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따뜻한, 사람 냄새나는 야경입니다. 계단 끝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그 ‘따숨’을 만끽하고 있자면 곁에 있는 환한 창문에서 TV소리, 음악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운 좋은 날도 있습니다.





‘아,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집에서 편히들 쉬고 있구나! 다행이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일진데도 안도의 마음이 드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
까요? 이 골목길이 가져다주는 분위기 때문일까요? 세상 모든 것은 연
결돼 있어서인지, 이곳엔 사람이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리들은 도시의 소음이 아니라 조곤조곤 컷가
에서 울리는 따뜻한 세상의 소리입니다.

계단으로 이어진 골목길이 끝나는 곳엔 경신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캄
캄한 밤, 불 켜진 교실 창문을 본 적이 있나요? 이 깊고 푸르른 밤에 우
리의 아이들은 왜 저기에 앉아 공부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텅 빈 운동장일 때도, 몇몇 아이들이 산보를 할 때도 있
습니다. 파란색 철창담 사이로 보이는 학교 운동장과 농구대는 행여 외
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환하게 불을 밝힌 경비실과 가로등이 있어 평화
로워 보입니다. 이제 학교와 집들 사이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언덕 위
의 길입니다. 아담한 단독주택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들이 있
는 곳. 밤하늘이 가운데로 난 한적한 그 길은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던
푸르렀던 청소년기의 기억을 소환해줍니다. 오른쪽에는 밤 한가운데 놓
인 중고등학교가 곁을 지키고 있고 왼쪽에는 불빛 새어나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화단이 있는 집도 있어요. 참 어여쁜 꽃들이 반겨주고 차가운
시멘트 사이로 나보란 듯 올라와 있는 민들레도 보입니다. 밤은, 그리고
길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한낮 태양 아래에서는 조용
히 침묵하고 있던 생명들이(아마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지 재잘대고
있을 거긴 합니다만) 밤이 되면 소곤소곤 말을 꺼냅니다.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입니다. 지나쳤던 생명체들의 두 팔 벌린 환대가 벽
찬, 밤길. 성북동의 깊은 밤길입니다.

밤이 더 깊어갑니다.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한 곳만 더 들

렀다 가려합니다. 이화빌라 주차장입니다. 지인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어슬렁거린 골목길도 지인 때문에 알게 된 길이랍니다.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이화빌라 주차장의 묘미는 조각난 야경이 아닌, 온전한 성북동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빌라사람들에게 방해라도 될까봐 살금살금 주차장 담벼락으로 걸어갑니다. 탁 트인 성북동의 밤 풍경이 달려듭니다. ‘와락’하고 말입니다. 한참을 바라보며 머리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기억들이, 공간들이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어릴 때 따뜻했던 기억들, 등하교길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골목길들, 저녁 무렵 대문 앞에서 우리를 부르던 엄마, 아빠의 ‘밥 먹자’ 하는 소리들. 동네 어르신들의 밤마실에 껌사리 끼어 잠안 자고 놀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이미 곁에 와있습니다. 입가에 나도 모르는 사이 미소가 올라오고 심장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분주하고 정신없었던 하루를 보낸 우리에게 선물이라도 주듯, 성북동의 밤 골목길이 선사하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여행.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골목길 여행이 끝나는 곳은 아름답드리나무가 있는 곳. 항상 거기 있는 나무와 파출소가 이 여행이 끝나는 장소입니다. 성북문학당이기도 피곤한지 다시 표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나무 한번 올려다보고 올라가 보려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당신, 일상의 삶이 잠시 당신을 흔들어놓을지라도 결코 휘청거리지 말아요. 아마도 성북동 골목길은 당신이 이 곳에 있을때까지 당신 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길이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도록 지켜내봐요. 이 삭막한 서울이라는 도시에게서, 무지막지하게 물려오는 자본이라는 괴물에게서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평화로운 꿈, 아름다운 꿈속에 머물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선물

포르투그 파로호자드

나 저 깊은 밤의 끝에 대해 말하러 하네
나 저 깊은 어둠의 끝에 대해 말하러 하네
깊은 밤에 대해
말하러 하네

사랑하는 이여
내 집에 오려거든
부디 등불 하나 가져다주오
그리고 창문 하나를

행복 가득한 골목의 사람들을
내가 엿볼 수 있게

-
최돌이(필명)는 성북동 부근 해오름한진한신아파트에 살고 있다. 서울 이곳저곳을 떠돌다 1999년 이곳에 자리잡았다. 성북은 베드타운으로 사용하다 잠시 숨고르고 있는 요즘, 밤마다 밝고양이처럼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 지나온 시간도, 사람도, 골목길도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 귀하고 소중한다’는 말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성북동 골목길을 탐험 중이다. 오감을 뛰어넘어 육감을 흔들어 놓는 성북동의 골목길들을 산책하는 골목산책가이다.



우리 동네 작가를 소개합니다
최성수 시인 『물결, 그 집』
 - 그래서 우리는 친구 아닌가?

신현수

“시가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만약 인류의 몸에 난 부스럼을 인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만약 수천수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어 있는 소원을 드러내주지 않는다면, 만약 보다 아름다운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만약 오늘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시가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 (애청)

1

최성수는 초등학교 때 고향 안흥을 떠났다. 아버지 등 식구들과 서울로

올라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성북동이다. 성북동, 아, 최성수에게 그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성북동, 서울이되 서울 같지 않은 곳, 서울에서 아파트가 없는 유일한 동네. 최성수의 제2의 고향 성북동은 강원도 출신 최성수에게는 가장 맞춤형 동네였고, 현재도 서울에서 공동체가 살아있는 동네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최성수는 강원도 안흥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서울 성북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의 두 아들도 모두 성북초등학교 출신이다.) ‘세 살짜리 계단’이 있는 성북동 산3번지 비탈길은 최성수의 또 하나의 고향이다.

그리운 것은 모두 두고 온 그 마을에 있으니,
 성북동 산 3번지 비탈길을 오르면 나는
 세월을 거슬러 소년이 된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집을 갖게 된 아버지는
 마당 귀퉁이에 작은 화단을 꾸몄다
 농부인 아버지의 기억이 담겼던 그 집
 삼백만원에 샀던 무허가 블록 집에서는
 한겨울이면 대접의 물이 퐁퐁 열었다
 세월처럼 바래고 낡아 마침내는 제 몸조차 가누지 못했던
 그 집
 세 살짜리 계단*을 걸어올라 한참 숨이 차야 만날 수 있던 녹슨 철대문과
 비가 오는 날이면 청량리역에서 기차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다락방
 한양도성을 마주보며 양지바른 언덕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그 마을에서
 나는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마침내는 아버지가 되었다
 성북동 산 3번지
 철거반과 맞서 똥물을 퍼부으며 싸웠던 사람들이 눌러 살던 곳
 제 몸을 부숴버린 블록 대신

새로 벽돌집을 지은 아버지는 담장 아래 장미를 심었다
 오월이면 담장을 넘어 늘어지던 장미는
 재개발의 광풍을 먹먹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아버지와 함께 심은 향나무도
 늙어 숨을 거둔 그 집
 집집마다 대추나무 한 그루씩 심어 가을을 맞았던 그 동네
 이제 젊은이들은 마을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나이 든 어른들만 옛 집처럼 늙어가는 곳
 3번지를 날던 비둘기가 사라지고 남은 하늘은
 오늘도 여전히 청청 눈부시다

—「성북동 산 3번지 그 집」중에서

최성수는 지난 2013년 성북동에 오래 살고 있는 동무들과 힘을 모아 마을 잡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도 펴냈다. 나도 그 잡지에 ‘성북동 골목길 기행기¹⁾’를 기고한 적이 있다. 최성수는 이웃들과 함께 성북동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모임 ‘성북동천’도 만들었다. 또한 시인, 가수들을 초청해 정기적으로 시 콘서트도 연다. 나도 그 모임에 제일 먼저 초대받아 간 적이 있다. 성북동은 간송미술관, 길상사, 성락원, 심우장, 선잠단지, 최순우 옛집처럼 잘 알려진 곳이 많지만 그것들이 주민들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숨결을 같이 하는 곳이다. 그들은 문화재가 문화재인지 모르고 산다. 길을 가다가 쉬고 싶으면 고색창연한 한옥이 카페로 변신한 ‘산수다향’에 들어가 십전대보탕을 마시거나, 배가 고프면 ‘디미방’으로 들어가 비지찌개랑 청국장을 먹거나 ‘생의 뜨거운 국밥 한 숟가락’ 뜨면 된다.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날아라 코끼리’나 과일카페 ‘58.4’로 간다. 길상사 공양 갔다가 꽃에 홀려 꽃공양

1) “성북동, 이렇게 걸어요”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창간호(2013. 11. 20)

만 하고, 돌아오면서 ‘해동꽃농원’에 들러 꽃 한 송이 사서 집으로 돌아온다. 한복을 맞출 일이 생기면 ‘혜음 한복’에 가면 되고 정말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낫술’에 가면 된다. 성북동의 봄은 영순 씨네 집 매화나무에서 온다. 성북동의 골목은 큰길에서 마을 끝으로 싹뻗듯이 되어 흐른다. 그래서 성북동은 공동체가 살아 있는 곳이다. 그가 태어난 고향이 물 맑고 산 깊은 강원도란 점, 그리고 평생을 살았던 곳이 성북동이라는 점, 그리고 자식들은 성북동에 두고 부인과 함께 다시 고향 강원도로 돌아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최성수는 적어도 땅과 관련해서는 북이 참 많은 사람이다. 성북동 북정마을 버스정류장에 붙어 있어 많이 알려졌지만, 탤런트 김남길이 낭송한 게 인터넷에 떠다녀 더 유명해진 시, 어쩌면 성북동이 최성수 시인을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성수 시인이 성북동을 살리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천천히 흐르고 싶은 그대여,
 북정으로 오라.
 낮은 지붕과 좁은 골목이 그대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
 삶의 속도에 등 떠밀려
 상처 나고 아픈 마음이 거기에서
 느릿느릿 아물게 될지니.

넙죽이 식당 앞 길가에 앉아
 인스턴트커피나 대낮 막걸리 한 잔에도
 그대, 더 없이 느긋하고 때 없이 평안하리니.

그저 멍하니 성 아래 사람들의 집과
 북한산 자락이 제 몸 누이는 풍경을 보면

살아가는 일이 그리 팍팍한 것만도 아님을
때론 천천히 흐르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임을 깨닫게 되리니.

북정이 툭툭
어깨를 두드리는 황홀한 순간을 맛보려면
그대, 천천히 흐르는 북정으로 오라.

—「북정, 흐르다」 전문

2

최성수는 교사 시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한 전교조 일을 열심히 했다. 해직 결정이 되고 마지막 수업 중이 울리기도 전에 교실을 나오면서 두고 온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고, 해직된 후 아들 소풍 가는 날 닭장차에 끌려가기도 했고, 아버지가 농사지은 사과를 팔러 친구가 근무하는 학교에 가져가기도 했다. 퇴직금마저 거덜 난 통장을 보며 몰래 한숨짓는 아내 옆에서 창문만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전교조 일 말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았다. 전교조에서는 김진경 형 등과 함께 교과위원회 등 주로 참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일에 진력했다. 전교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는 김진호, 김성수 등 성균관대 대학원 국문과 동무들과 함께 문학교육연구회를 만들고 국어교사들을 위한 책을 꾸준히 펴냈다. 문교연에서 내는 책들은 요즘 말로 하면 매우 핫한 책들이었다. 『삶을 위한 문학교육』, 『우리들의 문학교실』 등은 순수문학이라는 미명 하에 서정주 모운숙 노천명 등 ‘친일파 나부랭이’들의 글만 잔뜩 실어놓은 국어교과서에 철퇴를 가하며 만든 대안교과서였고, 『희망이라는 종이비행기』는 그때만 해도 흔하지 않았던 중고교생들의 글 모음집이었고, 『학교야 학교야 뭐하니』는 학교현실을 풍자한 콩트집이었다. 『다시 읽어야 할 우리 소설』 같은 책도 펴냈다. ‘문

교연’에서 내는 책들은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가르치느라 밤마다 자괴감에 떨었던 나를 비롯한 당시 많은 국어교사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였다. 그 중심에 최성수가 있었다. 최성수의 제자들은 일 년에 한 번씩 보리소골에서 일박이일로 엠티를 한다. 이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자식들까지 데리고 온다. 환갑잔치도 제자들이 해줬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참 부러운 일이라는 걸, 선생 해본 사람은 다 안다. 이 세상에 일방적인 관계란 없어서 제자들이 선생에게 잘한다면 선생도 제자들에게 잘해주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제자 사랑이 끔찍한 최성수에게 세월호 참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비가 내려서 하루쯤 빼먹어도 되는 곳,
계단 틈에 핀 민들레 앞에 앉아 있다
한두 시간쯤 늦게 들어가도 되는 곳,
사월 하늘이 너무 푸르러
수업 중 슬그머니 일어나도
선생님 그저 빙그레 웃어주는 곳,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위해
어둠조차 천천히 찾아오는 곳,
벚꽃 그늘에 돌이 앉아
지워지지 않을 시간들을 나누는 청춘의 마을

그리워도 돌아오지 마라
지각의 두려움과 공부의 공포
빛나는 젊음을 옥죄는 온갖 제도의 틀을 넘어
이 지독한 대한민국의 21세기로부터
너희들, 더 벗어나거라
우리는 너희들을 지켜내지도 못했고,

너희들의 행복을 지켜보지도 못했으니,
 이대로는 돌아오지 마라
 더러운 자본과 무모한 권력의 손을 들어준
 이 애비 애미의 세대들이 지은 죄로 너희들
 꽃 피어 보지도 못하고 지게 했으니

바람이 불어서 하루쯤 빼먹어도 되는,
 꽃이 저서 여드레쯤 슬퍼해도 되는,
 그곳으로 수학여행 떠난 아이들아

—「수학여행-세월호의 아이들에게」 전문

3

지난 4월 6일, 최성수가 깃들여 살고 있는 그의 고향 횡성군 안흥면 보리소골에 다녀왔다. 횡성까지는 평창 올림픽 이후 KTX 강릉선이 생겨 청량리역에서 한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 최성수는 출판기념회 등의 내 개인적인 행사에 거의 개근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녀간 그의 고향에 나만 뒤늦게 찾아가려니 조금 미안했다. ‘운동장해장국’집에서 내장탕으로 점심을 먹고 카페 ‘커피행성’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 최성수를 따라다니다 보니 여기가 성북동인가, 하는 착각에 잠시 빠졌다. ‘운동장해장국’ 사장님은 몹시 친절했고, 카페 한쪽에 주인이 직접 선정해 놓은 책이 꽂혀 있는 샵인샵 형태의 서점 겸 카페 ‘커피행성’은 카페라기보다 이미 횡성의 문화공간이었다. 최성수가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최성수가 살고 있는 곳마다 그런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는 잘 모를 일이었다. 보리소골로 들어가기 전에 안흥면 소재지 농협마트에 들러 아버님 드릴 백세주를 한 병 샀고, 그 유명한 안흥 전병도 샀다. 그의 아내가 만들어 준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다. 특히 도토리묵을 맛있게 먹었는데 아내의 말에 의하면 친구 오면 준

다고 몇 시간을 저어서 만들었다고 했다. 저녁상을 물리고 가져간 시 원고를 꺼내 들었다. 최성수는 물을 마시고 나는 맥주를 마시며 번갈아 시를 하나씩 낭송했다. 최성수의 집은 동네 맨 끝집, 산 아래 첫 집이라 내가 사용하는 전화기는 터지지도 않았고, 최성수가 수십 년 전에 심어 놓은 낙엽송들의 검은 그림자만 밤새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보리소골의 봄밤은 깊어만 갔고, 그의 두 번째 시집 『작은 바람 하나로 시작된 우리 사랑은』의 발문에 나오는 얘기가 생각났다. 일생의 꿈이 뭐냐는 친구의 질문에 최성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내 꿈은 고향인 횡성에 내려가서 말이야. 양지바르고 조용한 산기슭에 집을 한 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시를 쓰며 사는 거야. 가끔 시를 쓰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오면 함께 지내면서 시를 짓고 문학과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집을 하나 갖고 싶어.”

최성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 그의 꿈대로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 비록 그의 몸은 아프지만 그가 잠시 부러웠다. 최성수와 나는 같은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냈다. 그것도 신생출판사. 그래서 우리는 친구 아닌가? 최성수는 평생 부지런히 나를 찾아왔고 나는 게으르게 최성수를 찾아다녔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아닌가? 최성수는 입버릇처럼 말한다. 사람은 살아온 깊이만큼 말할 뿐이라고. 시와 삶 모두 더 넓고 깊어지고 싶다고. 또 자주 말한다. 시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의 모든 말에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아닌가? 최성수와 나는 좋아하는 여행지가 거의 같다. 그가 다녀온 곳을 나도 거의 다 가봤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아닌가? 그러면 됐다. 이제 함께 늙어갈 일만 남았다. 그러면 됐다. 다만, 이제 그와 더 이상 술 한 잔 함께 기울일 수 없음에 대해 통탄하고 또 통탄한다. 그것이 세상과 싸우다 얻은 병이라 더 속상하고 속상하다. 라오스의 그 유명한 비어라오 예찬시를 쓸 정도로 맥주를 좋아했던 최성수 본인은 얼마나 더 비탄스러울 것인가? ☹

라오스에 가면 ‘비어라오’를 마셔야 해요
체코 기술로 만들었다지만,
비어 라오에서는 라오스의 내음이 나요

잔에 얼음 몇 덩이를 넣고
가득 라오 비어를 따라요

느릿느릿한 라오스 사람처럼
잠시 숨을 고르고 기다려야 해요

한 이삼 분쯤
그 시간
한 생이 지나가고
참과 꽃이 피었다 지고
길을 걷던 소녀가 자라 아가씨가 돼요

그리곤 단숨에 잔을 비워야 해요
여전히 얼음 조각은 잔에 남고
머리끝까지 찌를 듯 살아나는
영혼

라오스에 가면 꼭
‘비어라오’를 마실 거예요

먼 땅에 홀로 남아
천천히 그 시간들을 마실 거예요

—「비어 라오」 전문

* 본지 편집위원인 최성수 시인이 5번째 시집 <물골, 그 집>(도서출판b)을 출간했습니다. 이 글은 신현수 시인이 쓴 시집의 발문을 필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

신현수는 계간지『시와 의식』(1985년 봄호)에 ‘서산 가는 길’ 등 5편이 박희선, 김규동 시인에게 추천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서산가는 길』, 『처음처럼』, 『이미혜』, 『군자산의 약속』, 『시간은 사랑이 지나가게 만든다더니』, 『인천에 살기 위하여』, 『천국의 하루』시전집으로 『신현수 시집(1989~2004)』(상, 하), 시선집으로 『나는 좌파가 아니다』 등이 있으며, 저서로 『선생님과 함께 읽는 한용운』, 『시로 만나는 한국현대사』, 『시로 쓰는 한국근대사 1』, 『시로 쓰는 한국근대사 2』 등이 있다. 사단법인 인천사람과문화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라오스방갈로초등학교를 돕는 모임 명예대표로 일하고 있다.



우리 동네 전시를 소개합니다

Museum and Restaurant: Figures, Tables, Exhibits

2019. 7. 1 - 13 / 7. 18 - 22

17717

project Habit & Habitat(기획 박현수)는 지난 2017 뮤지엄 레스토랑 한식공간 오픈 프로젝트 ‘식食에서 식式으로’의 기획에 이어 예술과 일상의 다양한 관계를 살펴보는 《Museum and Restaurant: Figures, Tables, Exhibits》전을 마련합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과 음식을 둘러싼 미감과 미식의 복합적 감각의 교류가 오고 가는 제3의 공간으로서 뮤지엄과 레스토랑의 사람, 요리, 장소, 시간 그리고 관계들의 이야기를 감각적 언어로 소개하는 작업을 통해 예술과 일상의 매개로서 뮤지엄 레스토랑에 대한 예술 활동의 가능성을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음식과 요리의 영역을 단순히 감각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서 바라보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화적 관계를 구성하는 핵심적 활동으로 동시대 음식문화를 조망함으로 일상의 문화를 예술적 가치로 전달하는 작은 대화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술을 향유하는 또 다른 방식의 실험적 장소로서 뮤지엄과 레스토랑이 공유하는 예술적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 17717 전시 소개 전문 중에서 발췌









우리 동네 아트살롱

성북동 놀이터 갤러리 달드베르

이윤주

달드베르(dalle de verre)란 불어로 유리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스테인드글라스 기법 중 하나로, 두꺼운 유리 블록을 통한 보석같이 찬란한 빛을 지닌 스테인드글라스입니다. 달드베르는 스테인드글라스와 직물을 다루는 작가들이 모여 함께 아트페어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소재이지만 빛이 있을 때 창문에 놓이는 유리나 직물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빛이 통과하여 바닥에 아름다운 색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빛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개성을 가진 색유리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찬란한 스테인드글라스가 되고, 각기 다른 조각천이 모여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들어 내

듯이 우리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고 때로는 감추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신명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는 것이 생활 속의 미술을 실천하는 달드베르의 지향점입니다.

성북동은 물이 맑고, 도성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직물과 관계가 많은 곳입니다. 조선시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비단을 짜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제사를 지내던 곳인 선잠단, 직물을 하얗게 표백하던 마전터 등이 있습니다. 달드베르는 성북동에 위치한 선잠단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달드베르가 성북동에 자리를 잡던 2015년에는 백년 된 뽕나무가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삼죽오가 날아온다는 상(桑)나무와 실크에 관한 전설은 많은 영감을 줍니다. 앞으로 선잠제를 지내던 제단이 원래 모습으로 복원된다고 하니 기대됩니다.

달드베르는 생활 속의 미술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술가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술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생활 속의 미술은 내가 사용하는 것들의 하나하나 어울림과 아름다움의 문제를 고려하는 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놓일지 궁리해보는 놀이입니다. 즐거운 놀이는 추운 것도, 더운 것도, 어떤 힘든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즐겁게 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채널을 돌리면 됩니다. 생활 속의 미술은 갑작스러운 계획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나의 감수성을 찾아가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달드베르에서는 그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 한국의 서정 추상 화가 이남규(1931-1993)의 작품을 모티프로 패브릭 개발



- 식물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모임을 하고 결과물을 함께 전시
- 전통의상을 전공한 작가들이 모여 단체전 진행
- 공예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 기획, 실크를 소재로 규방공예 모임
- 실크의 이론과 역사를 공부, 다양한 핸드메이드 클래스
- 텍스타일 상품과 굿즈 개발, 작가들과 함께 폴리마켓 진행

그 중에서도 2019년 봄에 선잠박물관과 함께 한 클래스에서 마무리로 빛깔이라는 전시를 진행할 때 참여자들이 색(color)을 주제로 글쓰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바느질과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보며 가슴 뭉클한 사연을 풀어 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만드는 시간 내내 행복했다는 말씀에 기운이 납니다.

생활 속의 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저 자신도 그것이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리도 자신이 창안한 개념에 대해 말하면서 처음에는 자신도 용어를 똑 부러지게 정의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사용하면서 몇 년이 지

나자 서서히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과 만나 놀이를 계속하면서 생활 속의 미술의 의미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생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

-

이윤주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배화여자대학 전통의상과에서 색채기획과 의상디자인을 가르쳤다. 2015년부터 달드베르(dalle de verre)를 운영하면서 생활 속의 미술 운동을 하고 있다. 달드베르는 성북구 성북로 84 선잠서재 3층에 위치해 있다.

전화. 02-3141-5082 / E-mail. younjoolee.dalle@gmail.com

인스타그램 @dalle_de_verre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달드베르



주민기

자기를 찾아서

‘내 손으로 만드는 책 워크숍’ 후기

강다혜

성북구에서 마을 활동을 하는 친구의 권유로 <활자형 매체 워크숍 - 내 손으로 만드는 책>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4주 차에 걸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보고 글로 표현해보며 편집과 구성을 통해 자신의 책으로 꿰어보는 시간이었다. 월요일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20대부터 50, 60대 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참가자들이 많았고 우리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조기옥 강사는 직장생활을 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남편과 새로운 장소에 놀러 갔다가 혼

자 남겨진 시간에 문득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하는 생각과 함께 아내, 엄마, 며느리는 있는데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유치원생 아이부터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아내, 엄마, 며느리가 아닌 자기를 찾고 싶어 했고 입장과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여성으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며 ‘자기를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가?’

친구와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책임져야 할 것도 없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넌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라는 질문에 친구는 “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살고 싶어.”라고 했고, 나는 “여행을 다니며 글을 쓰고 시를 쓰면서 살고 싶어.”라고 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도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신의 선택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 헤르만 헤세, <데미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며 글을 쓰면서 경제적인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을 건디는 나에게 어느 날 친구가 응원의 선물과 함께 메시지를 전해왔다.

“온전한 자신으로 살기 위한 깊은 씨름을 응원해.”

자기를 찾는 여정도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자기를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성장에 대한 의지는 본래의 자

기를 찾아 자기모습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자기를 찾아가며 그 누구의 엄마, 아내, 며느리, 딸이 아닌 자신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한 사람을 응원한다. 누군가가 되기 위해, 다른 무엇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고 자신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아 온전한 자신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

강다혜는 마음예술가이다. 청소년 상담을 했고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시대에서 '감정산책', '시와마음산책' 등을 진행하며 청년들의 마음을 만났다. 현재 자기다움으로 혼자 또 함께 사는 삶을 연구하며 느낀 마음을 글로 쓰고 있다.



주민공론장

〈동네비평 : 성북동 공공미술〉 현장기록

현장기록·편집 | 김기민

작년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가 주목했던 이슈, 주민참여 공공미술프로젝트와 마을 공유지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나눠보는 자리 〈동네비평 : 성북동 공공미술〉이 성북동천과 성북예술커뮤니티[모모모] 공동주최로 지난 10월 29일 리홀 아트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공론장은 이꿈이(사회자)로 성낙경 (사)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 여는 딸(패널)로 김경민 성북구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웅기 협동조합 아트플러그 이사장이 수고해주셨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각자의 생각을 더해주셨으며, 그 기록을 마을잡지 지면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유합니다. 편집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12호에 신지 못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13호에 신습니다. (편집자 주)

여는 말 1. 성북동 거리갤러리 (김경민)

성북구립미술관은 2019년 1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설립된 구립미술관입니다. 십여 년 동안 설립 당시의 정체성을 갖고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초부터 지금까지 근무해온, 8년차 학예연구사입니다.

저희 미술관은 작지만 성북동 미술사와 관련된 기획전시를 주로 해왔고 거리갤러리라는 외부 공간을 맡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미술관에서 기획하는 전시에서 살아계신 작가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거리갤러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존하는 분들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구 출연재단에 소속된 미술관으로서 예산과 행정상의 제약 존재하는데요. 사실 성북동 거리갤러리는 사실 다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에게 던져진 상황이었습니다. 미술관에게 거리갤러리 운영을 맡길 예정이었다면 공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미술관, 지역예술가, 성북문화재단에서 관여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공간이나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조각 작품 위주로 설치하여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공간 한 켠에는 아트큐브라는 컨테이너를 크게 만들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현재 설치된 공간은 규모가 크지 않아 활용도가 낮습니다.

아트마켓은 두 번 정도 시범운영해봤는데, 구포국수 일대 거리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그나마 오시는 분들도 외부에서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유동인구 유입이 어려운 곳입니다. 거리갤러리 가칭 중에 '장인의 거리'라는 명칭이 있었는데요, 성북동에서 운영하는 공방이나 공예가를 모시고 플리마켓 열면 어떨까도 생각해봤지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마켓을 열기에 적절한 공간인지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미 완성되었는데 언제 완성되는지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공미술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 작품을 바라보는 분들의 호불호와 이해도에 있어서 간극이 무척 큼니다. 바로 위쪽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정집이 대부분인데요, 거리갤러리를 문화, 공연 공간으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반면 눈에 띄는 것을 하지 말라는 반대도 많았습니다. 야외 영상 상영회 계획도 했지만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미나, 토론회를 거치고 각계 전문가 모시고 조정,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좋았겠지만 3개월 내에, 선잠박물관 개관과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급박한 일정에 맞춰야 한다는 구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예술가와 함께 상의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행정상 일정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년에 새 전시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구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서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공미술이라는 게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슈는 확실하게 됩니다. 공간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거리갤러리 운영방안과 이곳에서 공공미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한데,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미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가가 관건입니다. 성북동에 다양한 집단, 예술가들이 많이 토의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에 반영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성낙경) 구립미술관 소속 학예연구사로서 고충, 어려움들을 알 수 있었고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화 작가 작품에 대해 나쁘다 이야기하려던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 공공미술이라고 이야기됐던 부분에서 주민참여가 주최측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오픈된 참여가 아니라 기획된 참여, 대상화된 참여라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작품은 누가 바라보느냐, 어떤 감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각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모두 호불호는 있다. 작품을 비하, 폄하하기보단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공공미술이니까요.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성북동에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있고 저 또한 서양화 전공자로서 그게 변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저희 몫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런 자리가 더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했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는 말 2. 성북공공미술 오래된 미래의 예술 (김웅기)

왜 이 자리에 공공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공공미술에서 ‘공공’에 방점이 있는 부분과 ‘미술’에 방점이 있는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술을 잘 사용하려는 공공의 입장과 좋은 작품 만들려고 하는 작가 입장이 한 번도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 간의 역사입니다. 그 갈등을 누가 어떻게 조정해주는가가 그 사회의 척도이고, 그 간극을 조정해주는 사람들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공공미술의 문제점은, 한국 사람에게는 퍼블릭(Public, 공공의/공적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퍼블릭은 프라이빗(Private, 개인의/사적인)과 동시에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퍼블릭/프라이빗 상관없이 모든 것이 공공의 소유였습니다. 왕이 있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은 왕의 소유니까요. 명분은 언제나 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공의 소유인 나

라에서는 역설적으로 공이 없어집니다. 공이 없어지니까 결국 사가 된다. 퍼블릭이 자본주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 ‘사’라는 것이 사회 주도 세력으로 구축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사회적 구축이 된 다음 공의 영역이 형성되고, 영국과 미국이 그 예입니다. 그곳은 ‘공’이 없는, ‘사’가 ‘공’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일상이 ‘사’인 세계에서 ‘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공적입니다. 정말로 공/사 구분이 중요해지는 거죠.

‘공공’이라는 말에 대해 정해져 있는 개념이나 틀 속에서 이야기를 푸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갇힙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갈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공미술 불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그냥 둘 수가 없고 무조건 채워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술을 통해서 버려진 공간을 꽃피우는 게 아니라, 버려진 공간에 예술을 집어넣은 방식이랄까요. 차라리 안하는 게 무조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미술이란 무엇일까요. 돈 누가 부담했고 어디에 설치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가령 국가의 돈이든 사회의 돈으로 만들어졌다면 공공미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0.5~1% 공공미술을 위해 써야 하는 의무를 두고 대신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법이 있습니다. 예술성과 상관없이 없죠. 그게 사실상 공공미술의 큰 축입니다. 그게 너무 삭막하니까 동네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공미술이 시도되고 있지만, 한국 공공미술의 대부분은 아니고요.

답을 다 알고 파악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래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고, 일어나고 있는 각종 공공미술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자기 감각과 케이스를 끊임없이 검토해가면서 좀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는 말 1. 성북동 전체 공공미술을 기획·관리하는 조직이 있나요?
(홍익대 건축과 공공디자인 전공 학생)

김경민 : 조직이나 위원회는 없고 서울시, 각 자치구에 공공미술 현재 상황, 보존 상태 등에 대해서는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공미술 관리하는 전담팀은 없고요. 도시디자인과가 공공미술 관련 부서로서 거리갤러리 조성/운영도 도시디자인과와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바뀌었고, 이후 담당 과장이 계약 만료로 퇴사했구요. 대부분 계약직원인데 향후 입지는 모르겠습니다.

더하는 말 2. 성북동 거리갤러리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김경민 : 생태 프로젝트 구상이 있었습니다. 뉴욕 하이라인처럼 공원화 시키면서 중간중간 공공미술을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나 미술관만의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청장 교체되면서 다 없었던 일들이 될 것만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문화체육과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더하는 말 3-1.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공공미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빅 픽처(Big Picture), 롱텀 플랜(Long-term Plan)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지역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성북동 거리갤러리나 생태 프로젝트이어야 할까요? 영속성 측면에서 대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로 7017 만큼 돈이 없어서, 독창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토리가 없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하는 말 3-2. 기본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방식이 다른데 결과만 따 맞추는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하는 말 4. 작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한 사람도 좋게 보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빈 공간으로 남겨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담당하는 분들도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보니 힘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공감은 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화려한 이름 속에, 수사 속에 놀아나는 작가, 그 작품들에 대해 신랄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함께 언급하고 싶습니다. “눈속임이고 사기라는 말입니다. 빼어나고 훌륭할수록 감쪽같습니다. 예술가 스스로도 최면에 걸려 진짜인줄 압니다. 중독입니다. 자꾸 하다보면 점점 빠져듭니다. (중략) 하도 잘 꾸며서 그럴 듯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작은 구멍으로도 바람이 마구 세어나갑니다. 그 많던 쟁이들은 어디 가고 야바위꾼들만 득실댁니다. 예술은 어디로.” 관계되신 분, 예술인 분들께서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잘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하 성북동천 운영위원)

더하는 말 5. 오늘 언급했던 분 가운데 조정가가 많이 나와서 뿌듯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운영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성북동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민간이 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합니다. 공원도 민간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이라면 비워진 공간을 풍성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북동에 밀려오고 있는데, 표현할 수 있고 기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니 열린 공간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술에 대한 정의에서, 예술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생태 프로젝트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조경가)

더하는 말 6. ‘공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사회 구성원들이 두루 관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두루두루, 모두가 관계되는 것이라는 뜻

이겠지요. 재단에서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을 6년여간 해왔습니다.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든 없든 우리가 뭘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지 의견을 모은다면 돈은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공감할 수 있으므로 과정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면 위정자가 누가 되었든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의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콜라, 성북문화재단 문화지역협력팀)

더하는 말 7. 군산에서는 버려진 여인숙을 민간이 매입해서 예술공간으로 만들어서 작가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인 소도시에서 힘든 건 주민들과의 마찰입니다. ‘예술이 뭐야, 그게 밥 먹여줘?’ 처음엔 ‘사람 중심의 공공미술을 하자’였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딱하고 어둡고 무거운 것도 하나의 생명력으로 생각해서 미술화, 언어화시키자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성북구의 경우도 차후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길거리의 미술품들을 보존, 관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북 군산)

더하는 말 8. 이번 전시를 산업, 시각디자인 관점에서 볼 때 소재로 사용한 소쿠리를 보고 구하기 쉬운 일상의 소재 활용했구나 생각했습니다. 환경적이지 않다는 시각이나 찐티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주목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프로필 때문에 더 ‘우와’하며 봤던 것 같습니다. 장인의 거리가 시작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고요. 폴리마켓은 장소 특성상 어렵다고 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간에 대해 애정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을 지켜보고 싶고 의견 개진하고 싶습니다. (시각디자인 전공한 디자이너)

더하는 말 9. 건축은 공공예술입니다. 하지만 제가 건축주와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건 ‘이게 공공예술일까’하는 의구심입니다. 건축주가 요구하

는 것과 제가 지향하는 공공성이 부딪힐 때 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방면에서 공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공공이나 사적 영역이나의 문제를 미술이나 예술로 넘겨야 하느냐, 길거리에 세워둔 공공미술이라고 해서 그게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실제로 포스코에서 의뢰한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에 대해 흉물스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치워진 사례가 있는데, 과연 그것은 공공미술인 것일까요? 한국 사회는 관 중심이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들의 수준,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2018년에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해도 이런 논의가 바닥에서부터 일어나서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논의가 밑바탕에 깔려야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이 그 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의 자리가 그런 논의를 진행하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가 한 번에 끝날 수 없고요. 최정화 작가 작품으로 촉발되긴 했지만 선잠박물관, 선잠단지, 걷고 싶은 거리 등 성북동에서 이야기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을 주제로 앞으로 이런 담론이 계속 이어지는 게 성북동과 성북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호 건축그룹[tam] 대표)

더하는 말 10. 공공미술이라는 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최정화 작가의 <숲>은 내가 생각하는 성북동과 거기 놓여 있었던 작품 사이의 격차가 느껴지는 작품이었고, 작품 자체의 작품성과는 별개로 성북동에 맞는 작품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방우산장 조형물 보면 성북동에 조지훈 시인이 살았던 것은 맞는데 그것이 놓인 방식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북동에서의 공공미술을 생각할 때 성북동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가 더 크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 의미와 어울리는 방식 역시 성북동 안에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정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

소화나눔 1.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현장에 연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시발점은 최정화 작가의 작품이지만, 뭔가 실천하고 실행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되든 안되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소원 성북예술창작터 큐레이터)

소화나눔 2. 어쨌든 공공미술이란 타이틀로 놓일 때는 어떤 맥락이 있을텐데 그 맥락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작품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고 뭐라고 딱 정리가 되긴 어려운데 다양한 층위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정)

소화나눔 3. 공공이라는 말이 미술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공공이라는 것 역시 사람마다 정의가 달라서 공공성을 띄게 되거나 ‘나는 공공미술 작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공공이란 말을 빌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규철)

마무리 1. 거리갤러리 기획을 맡았고, 말을 때부터 반은 욕, 반은 칭찬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획전시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저렴하거나 무료인데 대중적 전시를 해야 할까? 성북의 과거, 현재 이어가는 공립미술관으로서 정체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발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김경민)

마무리 2.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타운쉽 형태의 수많은 자치모임이 있는데, 최근 70년간에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게 생활인 나라에서조차 점점 안하려고 하는 게 주민자치

입니다. 결정하는 모임에는 안오지만 스포츠나 콘서트에 나가는, 모두가 수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입니다. 예술이 사람들을 끌어내고 조직하는 방식으로 탁월할 수 있고 예술을 잘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 자체가 예술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걸 예술이라고 말하니까 주민참여 공미술프로젝트를 보며 혼동이 오는 것이 아닐까요? (김웅기) 

-

김기민은 성북동천 총무이자 본지 편집위원이다. 내가 사는 동네를 관심 갖고 들여다보다 보니 언젠가부터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잘 행사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9 성북동천은?

편집부

2013년 모임을 시작한 이래 어느덧 7년차를 맞았습니다. 두 번의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한 번의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주민공동체 지원사업, 여섯 번의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을 통해 마을학교를 열고 마을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을잡지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성북동 시인과 만나다〉와 같은 시낭송회를 열기도 하였지요.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천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6년 동안 반기별 2호씩, 한 호도 빠짐없이 펴냈습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의 도움이 컸고, 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뒷받침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성북동천은 올해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에 〈성북동 마을잡지, 지역사회와 함께〉를 제안했고, 원안대로 선정되어 지난 4월 25일부터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책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워크숍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고(5~6월), 연 2회 잡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성북동 주민들이 공감할만한 공동의 의제를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열 계획입니다. 무슨 주제로, 어떻

게 이야기 나눌지는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성북동 시인과 만나다〉 행사도 오랜만에 개최합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 성북동에서 한 평생을 살다 이제는 태어난 곳과 살아온 곳을 오가며 살고 있는 강원도 안흥×서울 성북의 시인, 그리고 성북동천 시작을 함께 했던 최성수 님의 시집 출판을 기념하여 시 낭송과 공연이 어우러진 “최성수 시집 『물골, 그 집』 출판기념 시 콘서트”가 7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성북동 17717에서 열립니다. 성북동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성북동천은 성북동 주민을 중심으로 17717, 건축그룹[tam], 동네공간, 성북디미방 등 동네 가게와 공간, 마을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및 예술인, 지역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주민모임입니다.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간행, 마을여행, 문화·예술 행사 또는 프로그램 기획,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모임 구성, 지역 의제 발굴 및 동네 현안을 다루는 공론장 마련,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과의 교류 및 관계형성, 민간 협력 및 민관 거버넌스 참여 등 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주민 간 연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희망제작소 주관 성북동마을학교 참여자 중심으로 모임 조직 (2013. 2~5월)
- 단체 설립 (2013. 5월)
-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013~2014) : 마을잡지 창간호 간행, 마을 사진전 개최, 마을학교 운영, 마을여행 진행

-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주민공동체 지원사업 (2014) :
마을잡지 4호(한양도성 특집호) 간행
-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2014~현재) : 마을잡지 2~3호, 5~12호
간행 및 웹진 발행
- 성북구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민관협력회의 참여 (2016~2018)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 (2016. 9월~2019. 1월)
-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추진단 컨소시엄 참여
(2017. 7월~현재)

연락하실 곳 | 전자우편 seongbukdong.town@gmail.com

카카오 플러스친구 @성북동천 (카카오톡 친구 창에서 검색 후 추가)

회비 및 후원금 입금 계좌 안내 |

신용협동조합(신협) 131-020-301180 (예금주 **성북동천**)

편집후기

내가 편집후기를 쓰다니

차정미

맨 처음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마주했던 그때를 떠올려봅니다. 2014년쯤 <밥짓고 티우림>에서 발견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알고 있던 마을잡지는 홍대 「스트리트 H」뿐이라 마을잡지가 있는 동네는 핫(hot)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북동에 마을잡지가 있다니, 이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아주 막연하게 ‘나도 이 동네에서 마을잡지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연하게 2016년도에 제가 성북동으로 이사 오면서 더 가까이에서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고, 출판기념회 행사도 재미있게 다가와서 챙겨 가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그 당시 성북동천이 진행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운영담당자를 알게 되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속으론 ‘마을잡지 만들고 싶어요’라고 외침이 있었으나 내가 너무 들이대는 것은 아닐까 말하지 못했어요. 웬지 천천히 자연스럽게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와 만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부터 제가 사업 운영담당자 겸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작과정에 참여했던 11, 12호 때는 만드는 과정이 뭐랄까 내 손 위로 한 겹 한 겹 손이 더해져 한 권이 완성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편집위원장을 맡게 된 올해는 마음이 또 다르네요. 편집위원장을 맡겠다는 말만으로도 일을 다했다고 봤는데요. 음... 이름만큼의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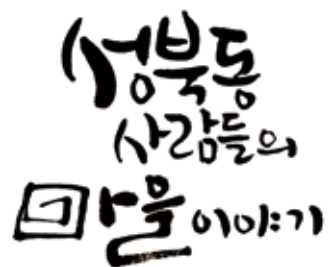
게는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되도록 무게보다는 재미있게 참여하는 게 좋고,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을 믿어주시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번호 특집기획으로 1호부터 12호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의 지난 호를 읽었을 때도 종종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전 권을 둘러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 시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5월에는 〈내 손으로 만드는 책〉워크숍을 진행했어요. 시작 전에는 ‘많이 와 주실까?’ 걱정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놀랐습니다. 주로 성북동 또는 성북동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못 뵈는 분들이어서 더 반가웠습니다. 성북동 주민들의 ‘책 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4주 맛보기 과정이었다면 다음에는 심화과정을 한번 기약해보고 싶습니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항상 주민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이런 기사 쓰고 싶은데 실어줄 수 있나요?’ 문의하셔도 좋고, ‘이런 기사도 좀 써주세요’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

-
차정미는 성북동천이 진행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운영담당자 겸 본지 편집위원으로, 올해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성북동에서 살면서 마을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다.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완성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나에게 맞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은 무엇일까 계속 실험 중이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13호 <비매품>

2019년 7월 27일 발행

편집위원 | 김기민 김철우 박진하 장영철 차정미 최성수
교정·교열 | 김기민 차정미

디자인 | 17717 김선문

펴낸곳 | 성북동천
기획·편집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
지원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동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12-6, 1층 동네공간
seongbukdong.town@gmail.com
카카오 플러스친구 @성북동천

웹진 brunch.co.kr/magazine/seongbukdong